본당 소식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며,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성탄 트리 및 구유 설치 준비**

- 사전 준비: 11월 15일 (미사 후), 보일러실에 보관된 트리 물품 확인
- 트리 및 구유 설치: 11월 22일 (미사 후), 청년구역에서 설치

♣ 다음 주 부터 주보는 이전처럼 프린트로 인쇄되어 나갑니다.

♣ **2027 세계 청년대회 참가 안내**

- 교구 대회 : 대구대교구 포항(27년 7월 29일~8월 2일, 4박 5일)
- 본 대회 : 27년 8월 3일~8월 8일, 5박 6일
- 대상 : 16세 이상(2027년 7~8월 기준), 선착순 30명
- 참가비 : 약 800유로(항공료 불포함)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카톡 본당 공지방 첨부)하셔서 bundotour@naver.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모임 / 회의**

- 3구역 모임 : 11월 21일 (토) 17시
  윤 모니카 자매님 가정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50.40€ • 교무금 340.00€

전례 성가

입당 :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봉헌 : 41 (형제에게 베푼 것)
성체 : 46 (사랑의 송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파견 : 65 (예루살렘 복되고)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15일)	다음 주일(11월 22일)
1독서 : 서인복 리노	1독서 : 박건욱 레오
2독서 : 류정연 릿다	2독서 : 이소현 엠마
복 사: 정아인 레나 / 강윤이 스텔라	복 사: 김사빈 엠마 / 문수빈 미카엘라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뇨

·사목회장: 강한 프란체스코 ·부회장: 정상현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전례위원장: 안희관 요셉 ·성모회장: 우윤정 마리아 ·외교위원장: 김산영 율리아
·청소년위원장: 문형민 셈 ·미디어위원장: 김근호 아우구스티노 ·청년구역장: 김우진 크리스티나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정명용 미카엘 ·3구역장: 이경진 카타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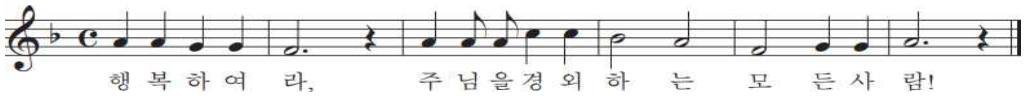
2026년 11월 15일 주일

(녹)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본기도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제1독서

▥ 잠언의 말씀입니다. (31,10-13.19-20.30-31)
10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
11 남편은 그를 마음으로 신뢰하고 소득이 모자라지 않는다.
12 그 아내는 한평생 남편에게 해 끼치는 일 없이 잘해 준다.
13 양모와 아마를 구해다가 제 손으로 즐거이 일한다.
19 한 손으로는 물레질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잣는다.
20 가난한 이에게 손을 펼치고 불쌍한 이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준다.
30 우아함은 거짓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는다.
31 그 손이 거둔 결실을 그에게 돌리고 그가 한 일을 성문에서 칭송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 1서 말씀입니다. (5,1-6)
1 형제 여러분, 그 시간과 그 때에 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마치 밤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화롭다, 안전하다." 할 때, 아기를 밴 여자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들에게 파멸이 닥치는데, 아무도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을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도록 합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복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5,14-30)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14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15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
다른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16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다.
17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두 탈렌트를 더 벌었다.
18 그러나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19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20 다섯 탈렌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다섯 탈렌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다섯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다섯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1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2 두 탈렌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두 탈렌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두 탈렌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3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4 그런데 한 탈렌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5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탈렌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26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27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28 저자에게서 그 한 탈렌트를 빼앗아 열 탈렌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29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30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에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인도하시어, 가난한 이들을 살피며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희망을 키우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2.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정의와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쓰게 하시며, 공동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게 하소서.

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보살펴 주시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제까지 애써 준비한 것들을 아쉬움 없이 잘 펼쳐 내도록 도와주소서.

4.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지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강복하시어, 가정과 사회의 좋은 관습을 지키고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사회에 상생과 공존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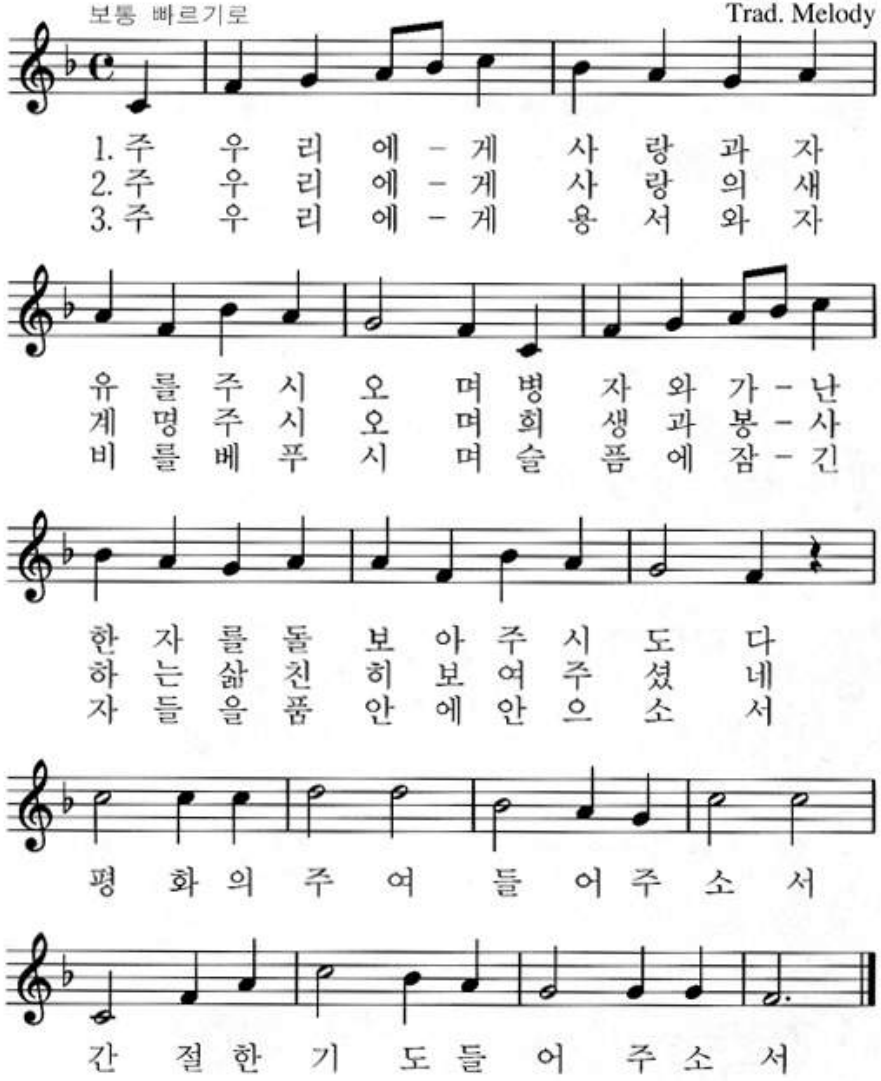
주님, 이 거룩하신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께서 당신 자신을 기억하여 거행하라 명하신 이 성사로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48 주 우리에게 사랑과 자유를

연중

김금자 역사
Trad. Melody

보통 빠르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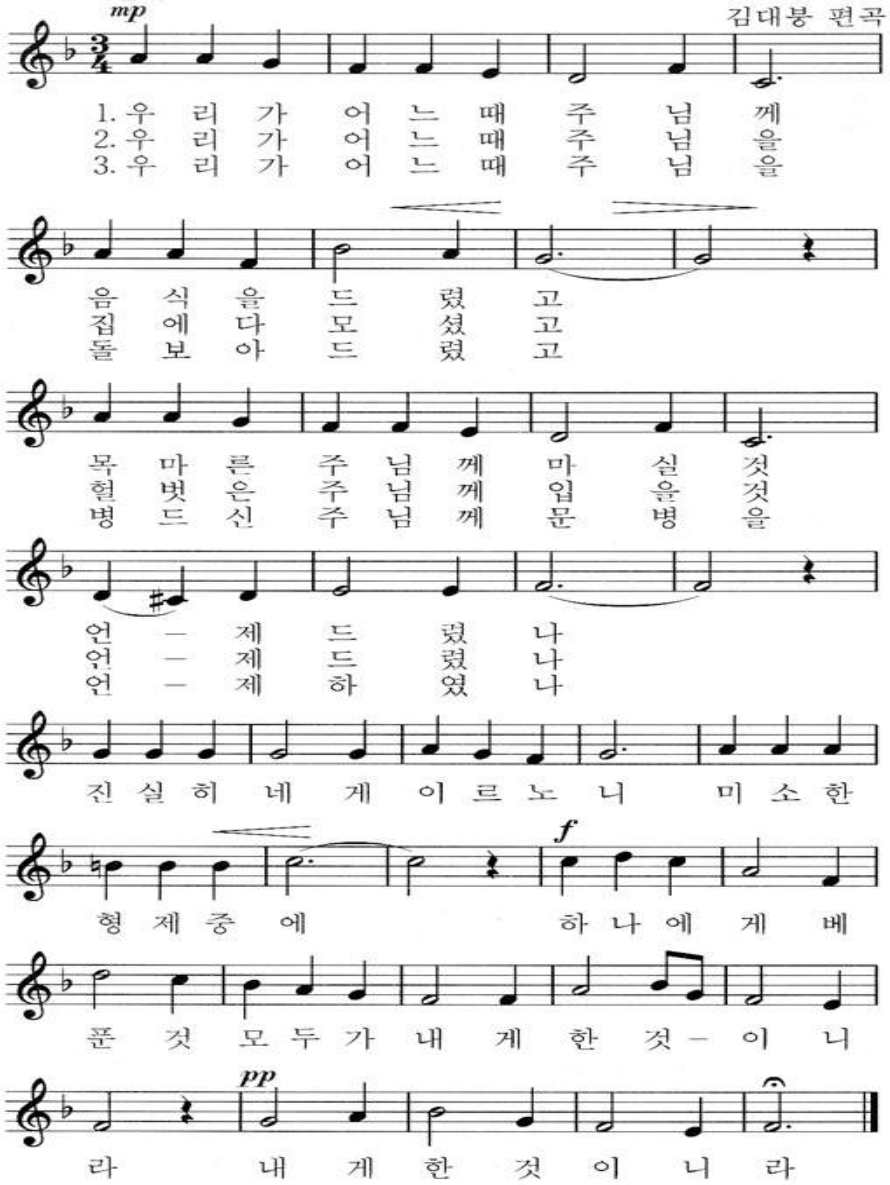


41 형제에게 베푼 것

(마태 25,37-40)

주재효 작곡
김대붕 편곡

가볍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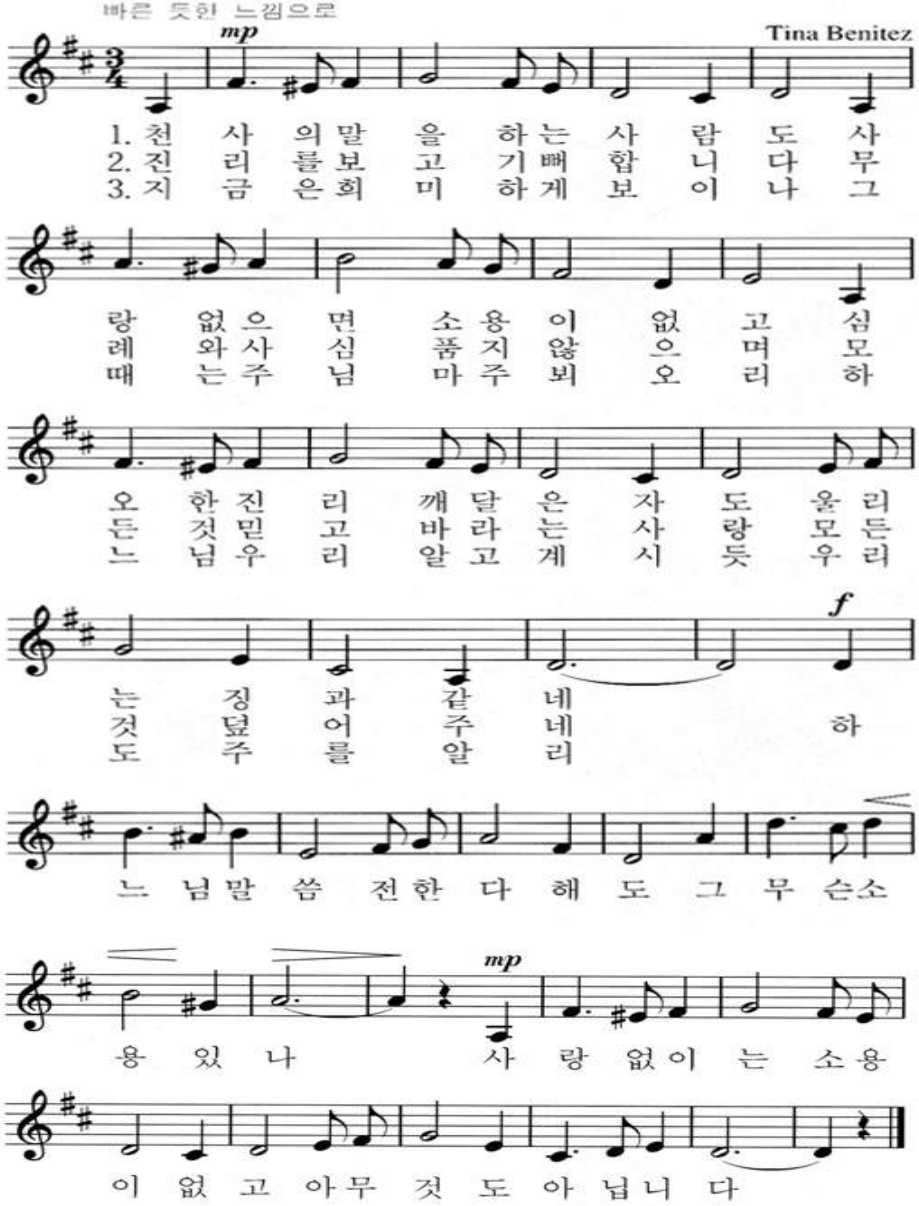
46 사랑의 송가

연중

(1코린 13)

빠른 듯한 느낌으로

Tina Benitez



연중

예루살렘 복되고 65

Con moto

J. Grabowski

